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7. 22.(월) 06:00 < 7.22.(월) 석간 > 배포 2024. 7. 19.(금)

첨단산업 공급망 핵심소재 생산 현장 점검

- 통상교섭본부장, PI 필름의 글로벌 최대 생산거점인 PI첨단소재 진천공장 방문
- 생산능력 초격차 확대를 위한 1,000억 원 증설 투자 계획 및 지원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7.22(월) 충북 진천에 소재한 PI첨단소재 사(社)의 산업용 폴리이미드(polyimide, PI) 필름 및 바니쉬 생산공장과 연구시설을 방문하였다. 폴리이미드는 상용화된 플라스틱 중 내열성, 절연성, 가공성이 가장 우수한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스마트기기 중심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빌리티 등으로 활용 분야가 확대되고 있는 핵심 첨단 소재이다.

PI첨단소재는 2008년에 SKC와 코오롱인더스트리 합작으로 설립된 이래 초고속 성장을 하여 2014년부터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작년 6월에는 프랑스 기업 아케마(ARKEMA)가 PI에 대한 지분 투자를 결정하여 한국과 프랑스 기업 간 협력 시너지가 기대되는 외국인 투자 사례이기도 하다. PI첨단소재는 2014년부터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23년 28.9%)를 유지하고 있으며 진천·구미 공장에 대한 1,000억 원 규모의 증설 투자를 통해 일본, 대만, 미국 등 경쟁국과의 초격차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일 현장을 방문한 정 본부장은 "PI첨단소재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생산능력이 아케마의 자금과 운영 노하우, 판매 채널 등과 결합되어 한단계 더 큰 도약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며, 제2의 PI첨단소재 육성을 목표로 우리 중소기업과 글로벌 기업간 협력 모델 확산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PI 첨단소재는 금일 간담회에서 지역 소재 기업으로서 연구개발 인력 유치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편, 핵심원료 소재의 국산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산업부는 외투기업 채용 박람회 개최, 대학과 연계한 상시 인력 매칭 등을 통해 우수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핵심원료 공급망 내재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일 방문에는 산업부 2030 청년 자문단*이 동행하여 우수 인력 확보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 기업·공공기관 재직자 및 학생으로 구성된 정책 모니터링단(단장: 청년보좌역)

담당 부서	투자정책관 투자유치과	책임자	과 장	엄재영 (044-203-4080)
		담당자	사무관	김민수 (044-203-408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